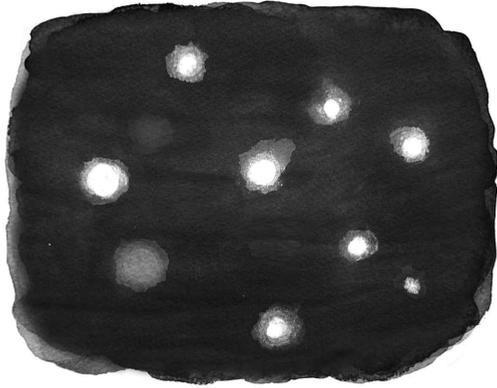


2020 - 2021

송구영신예배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믿음, 일치를 향한 모험

2020년 12월 31일 오후 8시

송구영신 예배순서

인도자: 김재홍 목사

조용한 기도 다함께

- 징 울 립 -

예배로의 초대 담임목사

여는찬송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함께

교독기도 다함께

인도자 :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회 중 : 주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빛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억들과 마주하게 해 주십시오.**

인도자 : 쓰라린 아픔의 순간에도 함께하신 주님,
큰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는 우리를 안고 가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지지가 있었기에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회 중 : 주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 숨결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암담한 현실, 답답한 전망 너머에 있는
새날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해 주십시오.**

인도자 : 우리의 두려움과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
더 깊은 감사와 더 맑은 기대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다함께 :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생명과 평화의 호흡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이 다함께

| | | |
|------|---------------------------------|------------|
| 찬 양 | 487.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 다함께 |
| 성경봉독 | 시 36:5~10 | 인도자 |
| 특 송 |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영상)..... | 안수지 교 우 |
| 말 씀 |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 김기석 목 사 |

*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별첨) 다 함께

* 성 찬 식 (별첨) 다 함께

성도의 교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비록 전망이 밝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전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 그 빛으로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며 사십시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더욱 큰 빛을 발하는 교회를 이루며 사십시오.

회 중: 아멘. 어려움 중에도 새해라는 큰 선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계속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을 등불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찬 양 620. 여기에 모인 우리 다 함께

축 복 담임목사

성도의 교제

1. 신년감사 :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살길 바랍니다.
2. 인사 : 함께 예배를 드린 이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온라인으로라도 교우 간에 새해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5. 찬미하여라

모두 :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기도자 : 주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새로운 한 해 또한 전망이 밝지 않지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48. 두려워 말라

모두 :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기도자 : 주님, 많은 걱정 속에서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결코 걱정에 짓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113. 주님 너를 고치시며

모두 :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너를 찾으러 오시네 만나러 오시네

기도자 : 주님,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가 참으로 많습니다. 감염자와 그의 가족, 의료진, 방역당국과 현장 종사자들 한 명 한 명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새해에는 이전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94. 주님 나라는

모두 : 주님 나라는 의와 평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열어 주소서 그 문 우리 안에

기도자 : 주님, 청파교회는 새해에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될 때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111.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끄소서

모두 : 내 맘과 생각 당신께 이끄소서 빛이신 주님 잊지 마소서
나를 도우시고 기다려주신 주
나는 주의 길을 몰라도 주는 내 길을 아시나이다

기도자 :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과 길로 들어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송구영신 성찬식> (비대면)

- 예배 전 미리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성찬보로 덮어 놓습니다. 예배 중 성찬식이 시작되면 성찬보를 옆으로 치우고 성찬에 임합니다.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집례자 :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새해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이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회 중 :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만찬 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저희의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시어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회 중 :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집례자 :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셨고 새로운 빛을 보내시어 새 날을 맞게 하셨습니다.

회 중 :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창조의 새벽과도 같은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함께 :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성도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찬 제정사 / 집례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떡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 / 집례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여기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시어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회 중 :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영광 찬양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회 중 :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회 중 :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 중 :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회 중 : 아멘.

평화의 인사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가족과 인사)

분병례 / 집례자

집례자 :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 중 : 아멘.

분급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이 빵은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회 중 : 아멘. (앞에 준비해 놓은 빵을 먹는다)

집례자 : 이 포도주는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회 중 : 아멘. (앞에 준비해 놓은 포도주를 마신다)

성찬 후 감사기도 / 다함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주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된 생명과 평화의 일꾼이 되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찬보로 빵과 포도주 잔을 올려놓았던 접시를 덮는다.